



김인경

'그분이 오신 듯'...김인경 4R 버디만 8개, 마라톤 클래식 역전 우승 ▶6면

김인경(한화)이 7월 2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메도우스 골프장에서 열린 LPGA투어 마라톤클래식 정상을 차지했다. 3라운드로까지 2위를 달리던 김인경은 대회 마지막 날 버디 8개 포함 8언더파 63타로 '그 분이 오신 듯' 신들린 플레이를 하며 최종합계 21언더파 263타를 기록해 역전 드라마를 썼다.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고 미소 짓는 김인경.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7월 2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FC서울-전북현대대의 K리그 클래식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상임 1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야구대표팀 첫 전임감독 선동열의 로드맵 “금메달+세대교체 두 토끼 잡겠다”

최종목표는 올림픽...병역보다 실력위주로 선발

선 감독,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대표팀 지휘

국가대표는 성적을 내기 위해 하는 것
오승환·이대호 등 잘하는 베테랑 염두
24세미만 야생파인심은 어린선수들로
대표팀 가장 큰 난제 세대교체 시도

선동열(54) 전 KIA 감독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까지 한국야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전임감독으로 선임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선 감독을 KBO 사상 첫 국가대표 전임감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 감독은 올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부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년 제2회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 이어 2020년 도쿄올림

픽까지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됐다. 어깨는 무겁다.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사를 통해 드러난 야구대표팀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국제대회 성적이 우선? 세대교체가 먼저?
국가대표 구성에 있어 가장 큰 난제는 바로 세대교체다. 일본은 일찌감치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20대 젊은 선수들로만 대표팀을 구성해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은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당시 금메달 주역들로 팀이 꾸려지고 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더딘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성적을 내야하는 국제대회 특성상

모험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선 감독도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표팀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기간에 오승환 김광현 정근우 김태균 이대호 등 베테랑 선수들이 지금처럼 잘 해주다면 당연히 뽑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올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에서 어린 선수들이 경험을 쌓아보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까지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세대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회별 선수단 구성은 어떻게?

선 감독은 앞으로 총 4번의 국제대회를 진두지휘한다. 문제는 대회별 특성이다. 대회마다 선수단 구성에 있어 고려할 부분이 많아 고민이 크다. 선 감독은 “만 24세 미만이 참가하는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의 경우 경

기력을 감안해 와일드카드 3장이 포함된다”며 “이를 대비해서 아마추어 쪽과 2군 경기를 돌면서 젊은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려고 한다. 와일드카드 3장은 포수가 취약해서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다. 선 감독은 “일단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라며 “병역 혜택을 고려한다면 군 미필자로 선택하고 싶지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실력 위주의 기용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종목표는 올림픽이다. 예선전인 프리미어12에 뽑힌 멤버들이 거의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선수단 구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8면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신태용, 이유있는 동선 공개

대표팀 선발 기준 등 밝히며 K리그 관전 강한 동기부여, 국내파 최다 승선 가능성



통산 10회,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숙제를 이어받은 축구국가대표팀 신태용(47) 감독이 7월 23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1부리그 FC서울-전북현대전을 끝으로 1차 선수점검을 마쳤다.

숨 돌릴 틈이 없는 행보였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위원장 김호관)의 결정으로 대표팀 지휘권을 물려받은 신 감독은 부임 나흘 만인 7월 8일 전북-울산현대전을 시작으로 주중~주말, 또 토·일요일 가리지 않고 클래식 현장을 찾았다. 2주 동안 8경기를 살폈다.

물론 대표팀 감독이 K리그 경기를 지켜보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지 않다. 전임자들 같은 모습을 보였다. 다만 협회와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15일 유럽으로 떠난 율리 슈틸리케(63-독일) 전 감독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인천 등 일부 수도권으로 출입이 국한된 슈틸리케 전 감독과는 달리, 신 감독은 행선지를 최대한 넓혔다. 지방출장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기지도 거의 없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2차례 방문했을 뿐, 전국을 구석구석 누볐다. 수원삼성-제주 유나이티드전(9일), 서울-포항 스틸러스전(12일), 포항-수원전(15일), 상주상무-전북전(16일), 강원FC-울산전(19일), 제주-포항전(22일) 등이 직접 발걸음을 옮긴 현장이다.

전북과 포항 경기를 3차례 찾았고, 수원 및 울산, 제주를 2경기씩 살폈다. 이밖에 강원과 상주를 1경기씩 체크했다. 자신이 찾지 못한 지역에는 전경준(44), 김남일(40), 차두리(37) 코치를 파견해 빈틈을 최소화시켰다. K리그가 올스타전 휴식기에 접어든 가운데 신 감독은 FA컵(8월 9일)을 포함, 8월 12~13일 경기를 선수점검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또 있다.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동선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 슈틸리케 전 감독은 철저히 비공개 행보였고, 간혹 취재진과 마주치더라도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신태용호’는 다르다. 뚜렷하고 분명한 의사와 계획을 미디어 인터뷰를 활용해 노출한다. ▲방문 목적 ▲선발기준 ▲깜짝 승선 가능성 ▲베테랑 활용 등을 확실히 전달했다.

역사적인 K리그 통산 200골에 도전 중인 전북 스트라이커 이동국(38)도 “모든 K리그 선수들에게 전하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라고 신 감독을 지지했다. 결국 대표팀 감독의 동선노출 자체가 곧 국내파 지원을 자극시키는 동기부여인 셈이다. 대표팀은 8월 31일 이란전(홈)~9월 5일 우즈베키스탄전(원정)을 앞두고 조기소집(8월 21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소집규정(경기 사흘 전)을 깨는 만큼, 축구계는 사상 최대의 국내파 승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과 (국내파) 10명 인원이지만 선발한다면 반발도 클 것이다. 훈련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K리그들을 승선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여름 럭셔리 골프 반바지 특가 판매 2점 39,800원

여름 평상복과 레포츠를 동시에~ 쿨한 터치감 여름 반바지!!



신축성과 핏감이 뛰어난 프리미엄 반바지 긴 여름이 시작됐다. 반바지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여름 패션의 핏감을 살려 제작한 반바지를 2점 39,800원에 원프로부터 판매한다. 두점의 반바지가 여름 멋쟁이라는 찬사를 받을 것이다.



타이트하지 않고 넉넉한 밀 워터이 쿨한 터치감으로 다리의 열기를 식혀 주며, 타이트하지 않고 밀 워터이 길게 제작해 중년 세대는 물론 전 연령대를 아우른다. 지구 온난화로 봄이 없어지고 여름이 빨리 오는 이상 기후 탓에 착용하기 딱 좋은 반바지라 하겠다.

